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임명…안정화 '박차'

진우 스님, 임명장 전달…"위상 회복 진력을" 당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2월 16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혜일스님 "원융화합 통해 정상화"
주지 추천 일련 갈등들 진정 국면
해인사 "능력 출중…안정화될 것"
비대위 "환영 입장, 화합 운영을"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에 혜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2월 15일 경내 관음전에서 임회를 열고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임회에서 원각 스님이 직접 주지 후보로 혜일 스님을 추천했고,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추천에 동의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법보종찰로 그 위상이 크다. 최근 불미스런 일들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면서 "그간 혜일 스님께서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있던 만큼 스님의 부재는 종단 종무행정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다. 그럼에도 해인사가 가지는 위상이 있기에 혜일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보내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혜일 스님께서는 해인사가 빠르게 정상화돼 법보종찰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머리를 풀은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 소임을 맡으며 종단 출가자를 200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죄송하다"면서 "또한, 해인사 재적승으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불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인사 교구장으로 임명된 만큼 원융화합해 법보종찰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교구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해인사 주지로 혜일 스님이 임명됨에 따라 범계 의혹으로 인해 현응 스님이 주지를 사퇴하며 벌어진 해인총림의 일련 갈등이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월 15일 임회 추천 직후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지 후보로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 소임을 맡을 정도로 종무행정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해인총림의 조속한 정상화와 위상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긍정적 입장이다. 비대위 대표 성공 스님은 "혜일 스님은 능력과 성품이 뛰어나신 분이다. 주지 후보 추천을 환영한다"면서 "혜일 스님이 주지 임명을 받게 된다면 원융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인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4·15·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성남 봉국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에 도신 스님 추천

2월 14일 임회서 만장일치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도신 스님(서산 서광사 주지, 사진)이 추천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2월 14일 경내 황화정루에서 제56차 임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도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8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도신 스님은 재심호계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원장과 서광사 주지, 수덕사 성보박물관장 등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주시 시정 홍보는 교회에서만 하나?

'동 순방' 대부분 교회서 진행
"가능 시설 찾은 것 뿐" 해명
교계 "공공기관이 기독 편향"

전주시(시장 우범기)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동 순방'에 나서면서 주민들과 만나는 장소를 대부분 교회로 선정해 "특정 종교 홍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행사로는 이해할수 없는 장소"라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2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35개 동을 순회하며 전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청이 2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동 순방은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순방'은 민선 8기 전주시정 비전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3년 시정운영 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갖겠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35개 각 동별로 유관기관·단체장과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 100~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순회 장소가 대부분 교회로 설정되면서 불거졌다. 현재 공개된 2월 16일부터 3월 9일 일정에 따르면 총 13회 일정에서 8회가 교회, 1회는 성당에서 열린다. △여의동 동산교회·송천1동 사랑의교회(2월 17일) △평화1동 전주제자교회(2월 20일) △노송동 서은침례교회·풍남동 전동성당(2월 23일) △중앙동 성암교회(2월 27일) △동서학동 남성교회(3월 7일) △송천2동 새벽별교회(3월 9일) 등이다.

동 순방 일정 중 70% 정도가 교회에서 진행되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센터와 학교 강당 등 종교와 무관한 장소가 있음에도 굳이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자치행정과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전주시의 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원과 주차장, 영상자료 등이 가능한 곳을 살펴보며 종교시설뿐 아니라 각종 센터와 식당까지 살펴보고 정한 장소"라고 해명했다.

'동 순방'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제17교구 금산사 사회국장 우림 스님은 "과거에도 지자체의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전주시의 이번 행태는 공공기관의 행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한 후 교구 종무회의를 통해 총무원에 보고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교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도 "과거 특정 종교의 투표소 설치, 대구시 합창단의 종교편향 논란 등 공공기관의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일이 일어난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재가자들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전주시의원에 항의하고 시청 비서실 등을 통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교계 단체가 정식으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과 함께 1인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은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공간을 지금이라도 찾아 장소를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은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셔주세요"

마애불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명수 스님 3000만원 쾌척해
50년 적립했던 보험금 전액
부산연꽃모임 1100만원 전달



서울 미타사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이 2월 14일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로 비구니 스님이 평생 모아온 보험금부터 신행단체 모임을 회향하며 마련된 정재까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불사의 성공을 위한 정재(淨財)들이 전국에서 답지되고 있다.

서울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원로 명수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30년 전 산행 중에 우연히 열암곡 부처님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명수 스님은 50년동안 적립하다가 수령하게 된 보험금 3000만 원을 전액을 보시해 감동을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수 스님 같은 어른이 계셔서 열암곡 마애불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다"며 "빠르면 내년 후반에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여법하게 일으켜 세울 계획이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역사적인 날, 스님을 초청해서 기쁨과 감동을 함께 하고자 하니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977년 창립된 부산 여성불자 신행단체인 '부산연꽃모임'은 50여년 활동을 회향하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으로 1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대원성 부산연꽃모임 회장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모임의 대부분 회원들이 고령이라서 이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임을 회향하며 불사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부산에서 뜻 깊은 신행단체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치하하며 "종단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데 정재를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장학승 장학증서 수여

총 21명 신규 선발

조계종 종단 장학승들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규 선발된 종단 장학승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증서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장학승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장학승 선발을 축하한다. 종단 장학승으로서 사명감을 잊지말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면서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고, 포교의 난맥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다. 여러분의 역할에 한국불교 중흥의 성패가 달렸다. 종단 동량으로서 역할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지난 1월 31일 회의를 열어 '불기2567(2023)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신규 종단 장학승으로는 국외 2명, 국내 9명, 사찰승가대학원 10명 등 총 21명이 선발됐다.

신성민 기자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